

협 회 소 식

■ 직업병 심의위원회 설치

협회는 최근의 직업병발견문제와 관련하여 일부사안이 직업성여부를 놓고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점을 중시하여 향후 이와 유사한 문제들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어 회원기관 단속으로 판정키 어려운 직업병의심자 또는 정부 및 기타 외부기관으로부터 요청받은 질병에 대한 직업성여부의 심의·자문을 위하여 직업병심의 위원회를 구성하였다.

동 위원회는 상임위원과 특별위원으로 각각 10 인이내로 하였으며 대학연구기관의 예방의학 및 임상전문의들로 구성되었다.

■ 직업병 상담실 운영

특기협은 직업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한 치료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전국 37개 지역별 특수검진기관(자체검진기관 제외)에 직업병 상담실을 설치하여 사업주 및 근로자는 물론 일반의료기관으로부터의 자문에 응하며 필요에 따라 교육 및 기술지원활동도 전개키로 하였다.

상담실은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주간에는 항상 운영되며 노동부 지방관서와 상호 정보교환 및 협력지원체제를 유지하여 동 상담실운영의 효과를 더욱 발전시킬 방침이다.

한편 특기협은 직업병 상담기관임을 표시하기 위하여 표지판을 일괄제작하여 특수검진기관에 현판토록 하였다.

■ 실행이사 및 특기협 임원 연석회의개최

협회는 실행이사 및 특기협임원 연석회의를

지난 7.12~7.19 2차에 걸쳐 개최하고 직업병의 사회적 관심과 물의에 대해 책임검진기관으로서 깊은 반성과 책임인식을 같이 하면서 작업의 사태를 심기일전의 기회로 삼아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새로운 각오와 노력을 다할것을 다짐하였고 이를 위한 실천방안을 마련하여 전국 특수검진기관에 통보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직업병 문제는 사업주의 1차적 책임이외에도 산업보건 관계법령 및 제도가 산업의 발전과 시대의 흐름에 뒤따르지 못한 데에 그 원인이 있음을 지적하고

- 예방의식 고취를 위한 계몽 홍보 정책 확대
 - 사업장 보건관계자 중심의 보건관리 활성화
 - 전문기관 지원 육성책 강구
 - 민간전문기관의 주도화
 - 집단보건관리체제 추진
 - 노동부의 정책부서 기능 보장 및 전문직 근로감독관 증원
- 등을 정부에 건의하였다.

■ 협회, 국회 노동분과위원장 초치 간담회 개최

협회는 7.28 10:30-14:00 마포 소재 서울가든호텔에서 국회 노동분과위원회 김영배 위원장을 초치하여 한국의 산업보건 현황설명에 이어 직업병에 대한 근원적 원인과 대책방향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

동 간담회에는 조규상 회장을 비롯하여 대학연구기관에서 대표자 각 1명씩 5명이 참석하여 진지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며 김영배 위원장은 노동분과위 의원 여러분이 다함께 직업병에 관한 현실적 문제를 정확히 파악 이해하여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분과위원회에 대한 협회측의 계속된 현황설명회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의견을 피력하였다.